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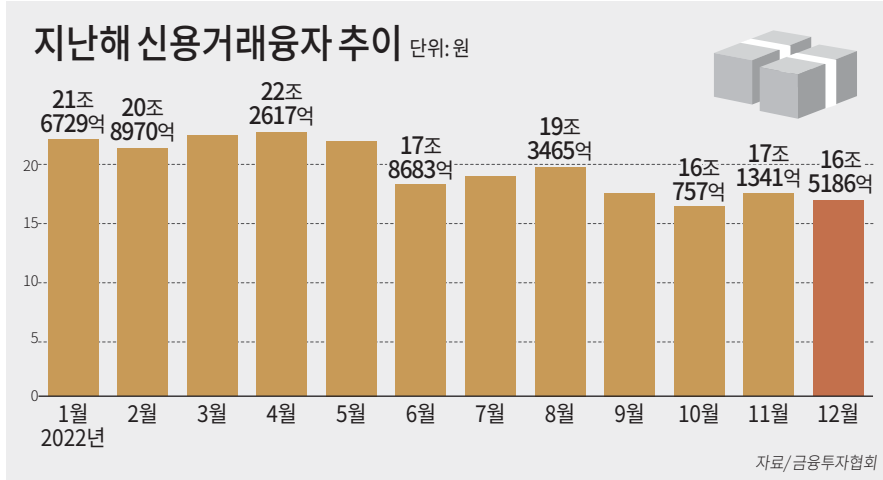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줄인상에 개미들 빗투 '주춤'

주요 증권사 이어 중소형사도 인상
이자율 12%까지 상승 가능성 높아
신용거래용자 잔액 0.06%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빗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의 신용투자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최근 증권사들이 금리 인상으로 신용거래 용자 이자율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새해 연초부터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KB증권은 1~7일 신용거래용자이자율을 5.3%에서 5.5%로, 8~15일을 8.6%에서 8.9%로 올렸으며 증권담보대출 이자율도 고객 등급과 무관하게 각각 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은 4일부터 구간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0.4~0.5%포인트가량 올린다. 1~7일 이자율(QV고객 제외)은 4.9%에서 5.4%로 오르고 61일 이상 이자율은 9.5%에서 9.9%로 인상된다.

신한투자증권은 9일부터 이자율을 인상, 7일까지 이자율을 5.05%, 90일 넘어가면 이자율 10%로 올렸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금리 인상에서 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구간별 이자율을 올렸는데 11~30일을 8.5%에서 9.

0%로 31~60일을 9.0%에서 9.3%로, 61~90일을 9.3%에서 9.5%로 인상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16일부터 신용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전까지 90일 이상 금리가 10%를 넘어선 곳은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3곳 정도였다. 하지만 올 들어 증권사들이 줄줄이 신용융자금리를 올리면서 12%를 넘기는 증권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준금리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자율이 1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올해부터 담보유지비용은 130%에서 140%로 돌아간다. 반대매매 기간을 유예해줬던 증권사들도 원상대로 돌림에 따라 빗을 내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증시 전망도 밝지 않아 개인들의 신용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16조 5186억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06% 줄었다.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해 6월 20조원을 기점으로 감소해 지난달 말부터 16조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의 연장선에 움직일 전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코스피 하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작년 4분기 실적 부담에 지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금 이 기회”... 서학개미, 기술주 상승 베팅

해외주식 Click

레버리지 ETF 순매수 상위권 차지
테슬라 5000만달러 팔며 순매도 1위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증시가 크게 짓눌린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고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지난해 12월 26일~1월 1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은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QQQ)로 집계됐다. 지난주에만 총 4204만달러가 유입됐다.

TQQQ뿐 아니라 상위권 3개 종목도

두 반도체, 테슬라 등 기술주 관련 지수를 1.5~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차지했다. 순매수 2위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퍼 3X ETF(SOX·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EAR 3X SHS)로 3439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뒤 이어 3위 종목은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1.5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 ETF(TSL·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로 1283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1% 하락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우세하면서 레버리지 ETF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지난주부터 테슬

라 순매도세가 포착됐다. 지난달 초부터 서학개미들은 주간 기준으로 많게는 6000만달러 이상 사들였으며, 매번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순매수 상위권에서 빠졌으며 오히려 총 5070만달러치를 팔면서 해외주식 중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주가는 190달러선을 유지했으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20달러선까지 추락했다. 이에 손절매 물량을 크게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이전 고점이었던 32배에서 10배로 하락한 반면,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2%에서 30%로 상승해 절대적 수준의 주가가 저평가됐다”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티커	순매수결계
1	PROSHARES ULTRAPRO QQQ ETR	TQQQ	4204만
2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ETF	SOXL	3439만
3	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 ETF	TSL	1283만
4	ISHARES 1-5 YEAR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IGSB	1001만
5	PROSHARES ULTRAPRO SHORT DOW 30 ETF	SDOW	694만
6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TLT	647만
7	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JEPI	489만
8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TMF	480만
9	HAIDLIAO INTERNATIONAL HOLDING LTD	6862	412만
10	ISHARES CORE SP 500 ETF	IVV	393만

기간: 2022년 12월 26일~2023년 1월 1일,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국 채권 ETF 매수세도 이어졌다. ▲만기가 1~5년 남은 미국달러로 발행된 투자적격등급 회사채를 모아놓은 ETF ‘IGSB’ 4위(1001만달러)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 ETF ‘TLT’ 6위(647만달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금리 3배를 추종하는

ETF인 ‘TMF’ 8위(480만달러) 등이다. 이외에도 다우존스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SDOW’를 694만달러, 미국 S&P500 구성 종목 중 배당률 높은 가치주를 선별해 담은 ‘JEPI’를 489만달러 순매수했다.

/이영석 기자 ysl@

건설업계 신년사 화두는 ‘위기관리·신사업’

고금리·경기침체 정면 돌파 다짐
건설 시장 불경기 속 ‘리스크 관리’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의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위기관리’와 ‘신사업’을 올해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신년사를 통해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부회장)는 신년사를 통해 ‘미래 성장 역량 확보’와 ‘내실 경영’을 주문했다.

박현철 대표이사는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업구조 개편으로 운영사업 등 고점수의 창출과 우량 자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건설업의

설계·조달·시공 단계에 있는 기술 연계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업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상품 개발에도 지속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불안한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술 및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경일 사장은 “지난해까지 신속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이뤘다면, 올해는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산(Asset)을 기반으로 혁신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내적성장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수전해 시장 선점을 위해 수전해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글로벌 재생에너

지 개발사들과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린수소 공급자(Provider)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친환경 및 미래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당부했다.

한성희 사장은 “철강과 LNG, 산업 플랜트 분야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저수익 사업은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성이 높은 개발형 사업도 선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품질실명제 전 현장 적용’ 등 근본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위기 대응 전략을 내놓았다.

최익훈 대표는 “프로세스의 근본부터 혁신하기 위해 핵심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품질 실명제를 전 현장에 적용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의 품질점검을 병행해 품질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시총 1000억 미만 알짜 중소형株 ‘주목’

株라쿨라의 종목

에이텍티앤·우신시스템·비피도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대표이사가 올해 주목할 만한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형주로 ▲에이텍티앤(애플페이) ▲우신시스템(애플카) ▲비피도(마이크로바이옴)를 꼽았다.

3일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재무 안정성, 비즈니스 성장성, 오버행 이슈 등 몇 가지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은 이 같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으로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솔루션 및 기타 무선통신장비 개발·제조 기업인 에이텍티앤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진출하고 티머니 활용이 확장될 경우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최 대표는 “에이텍티앤은 티머니 지분 9.5%를 보유 중”이라며 “애플페이 대열에 티머니 합류시 지분

가치 상승뿐 아니라 결제 관련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설비·부품 전문 기업인 우신시스템은 오는 2026년 애플카 출시에 따라 부품 공급망 구축이 전망된다.

최 대표는 “우신시스템의 고객사 ‘H그린파워’의 전신은 현대와 LG 합작으로 출범한 ‘HL그린파워’라며 “애플카와 협업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4%대 성장이 전망돼 모든 사업부문(차체, 부품, 배터리의 구조적 성장으로 실적개선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피도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사업과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를 영위한다.

최 대표는 “올해 해외 매출 확대에 실적 개선이 확실시될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 모멘텀까지 확보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